

여주 지역 경제기반의 변화와 지역 특성 연구*

남 혜 령**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Yöju Regional Economic Base*

Hye-Ryung Nam**

요약 : 본 논문의 목적은 여주 지역의 특성이 경제기반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조선시대부터 산업화의 영향이 적었던 1960년대 중반 이전까지 여주 지역은 비교적 유리한 자연적 조건과 교통로의 역할을 담당했던 남한강을 이용하여 이롭고 높은 미작지대였으며 상업적 기능도 활발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여주 지역은 교통조건, 미비와 법에 의한 개발규제로 인해 낙후된 농촌 지역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도로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었고 법에 의한 개발 규제도 완화되었다. 여주 지역에서는 미작 지대의 특성이 계속 유지되면서 영농의 다각화와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비중도 커지는 가운데 도자기 산업이 지역의 주요 경제기반으로 등장하였다.

주요어 : 지역경제기반, 여주, 지역 특성, 미작지대, 도자기 산지.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nge i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Yöju as its economic base has been shifted. From Chosun Dynasty to the mid 1960s, Yöju had been known as a core of rice production, utilizing favorable natural conditions and well developed river transportation system, with commercial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From the mid 1960s to the mid 1980s, Yöju had been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the national industrialization, which made Yöju remain lagged. The transportation system was blocked and the industrial investment in this area was prevented by a variety of restrictive laws. Since the mid 1980s, Yöju entered into a prosperous era as the land transportation system began to be dramatically improved and some of the restrictions were alleviated. Recently, diversif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ve progressed in land us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Yöju becomes a core of the pottery industry in terms of the total amount of its production.

Key Words : economic base, Yöju, regional characteristics, rice region, pottery industry.

1. 서 론

1) 연구 목적

인간의 삶이 영위되어 온 지역의 특성은 시간 및 공간상에서의 지속적인 인간 활동에 의해 부여되는데(Pred, 1985, p.337) 사람들이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생계 수단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을 밝히는 일은 지역의 이해에 있어 중요하며 지역을 연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연구

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리학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연구 대상 지역들은 짧은 시일 내에 매우 급격한 변화를 보여 주는 곳들이 많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들은 대체로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의도된 정책에 의해 공업도시로, 산업 지역으로 개발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들은 국가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변화도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곳들이다.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내적·외적 여건에 적응하여 생계 수단을 유지하는 경제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과(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그들만의 고유한 지역 특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 지역인 여주 지역은 정부의 정책적 혜택보다 제도적인 개발 규제를 더 많이 받았으며 문화·역사 자원이 풍부하고 자연이 수려한 수도권의 미작 지대로서 최근에는 농업 기반외에 다른 산업부문에서도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군(郡)단위의 농촌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 단위만의 의미가 아닌 역사성을 공유한 생활 지역으로서의 군(郡)단위 지역인 여주 지역의 특성이 경제기반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기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어떠한 내·외적 및 자연적·인문사회적 조건들이 있는지, 이 조건들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 왔는지, 지역의 특성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지역지리 연구방법론은 1950년대 이전의 전통적 지역지리와 1970년대 이후의 신지역지리로 크게 대별된다. 전통적 지역지리 방법론에서는 '지역적 차이'의 연구 자체가 목적이 되며(서태열, 1989, p.88) 지역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을 주로 하며 지표 현상의 독특성을 강조하고(최재현, 1995, p.13), 지역의 고유성을 폐쇄 체계 속에서 지역내 제 요소들의 다양한 결합 방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본다(손명철, 1994, p.22).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신지역지리에서는 지역을 사회적 행위의 산물(Jonston, 1991, pp.67-68)로 보며 지역의 고유성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설명하고(서태열, 1989, p.88), 다른 지역들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

우리 나라의 지역지리 연구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전통적인 개성기술적(idiographic)방식을 채택한 학위 논문이 많았으며 주요 대상 지역들은 도시가 대부분이었다. 1980년대에는 도시 주변 지역과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건설부 국립지리원에 의해 韓國地誌가 만들어졌고 지역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활발해졌다. 1990년대 들어서는 도시의 구조와 변화 과정을 다루거나 광산촌이나 산촌 같은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

와 신지역지리학의 방법론에 따른 연구들이 있게 된다. 최근에는 지역 연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지리학을 위한 지역지리적 연구의 강화를 주장하는가(김종욱, 1994, p.12)하면 세계화를 위한 지역 연구의 방향을 정립함에 있어 지역 연구가 일반적 법칙을 지향하는 접근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Moran, 1997, p.18)도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역사성을 공유한 소규모 생활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통적 지역지리 연구 방법론과 신지역지리 연구방법론 중 어느 한가지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역의 모습에 많은 영향을 준 과거의 활동 결과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계량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전통적인 기술에 의존해야 하고 자연환경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편, 현재의 지역 모습은 지역 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이나 외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역동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전통적 지역 기술 방법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신지역지리 연구방법론으로 보완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지역 연구에 있어 지역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지역의 주된 경제 활동의 변화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밝히려고 한다. 군(郡)지역이라는 범위는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이 외부 지역의 수요를 주로 만족시키는 경제 활동을 기반 활동으로 보고 있는 경제기반이론을 적용하려 한다. 우리 나라의 군(郡)지역들은 역대 왕조 시대 이래로 규모는 작지만 고유한 생산물을 특화시켜 공물로 바쳐왔기 때문에 산지로서의 명성을 갖고 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그 명성을 이용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화산업들은 지역의 고용과 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의 경제기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지역의 기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생적인 근대화 과정을 겪지 않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은 전통적인 경제기반과 그에 대비되는 새로운 경제기반을 경험하고 있고 구분되는 시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여주 지역의 전통적 경제기반을 미작 중심의 농업으로 보고 1980년 중반까지로 보았는데, 그 시기가

지도 전체 지역 가구의 60%가 농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역경제기반은 실질적인 생산량이나 값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농업외의 도자기 산업 비중이 높아지는 1980년대 중반이후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1985년에 도자기 산업이 지역특화산업으로 법적 인정을 받은 이후, 활동이 활발해졌고 1980년대 중반이후로 교통망이 확충되었으며 인구도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전개에 있어서는 지역의 경제기반이 가능하게 하는 지역의 제반적인 여건들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주요하게 본 내용들은 역사적 접근방법을 구사하여 지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이른바 지역지리학의 목적을 달성한(류제현, 1987, p.354) Meinig의 범주 내용을 참고로 하였다(Meinig, 1972, p.161). 그러나 문화적 공통성이 많고 인구 이동이 크지 않은 소규모 지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네가지 범주(인구, 순환, 정치지역, 문화)를 다 적용할 수는 없다. 순환으로 표현되는 교통 조건과 정치적 힘에 의한 통제로 인한 행정 지역의 변화라고 하는 두가지 범주에다 주민들의 생계와 삶에 크게 영향을 준 자연환경의 범주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세가지 범주들은 시대에 따라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역의 경제기반을 가능케 하는 기초적인 여건들이다.

여주 관련 문헌과 각종 통계 및 군(郡) 관계 자료 등을 이용하였고 현지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도자기 관련 생산 업체와 도자기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영주들로 한정하였다. 회수된 130부 중에서 부실하게 기재된 10부를 제외하고 연구자가 직접 설문한 16부를 합한 총 136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그밖에,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들을 재편집하였고 1996년도 여주군 다두 사육 농가 조사서, 여주군의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보고서, 사업체 기초 통계 사업체 명부, 북내면의 기초 사업체 통계 명부(1997년)도 이용하였다.

2. 전통적인 지역 경제기반

1) 이름이 높은 미작 중심 지역

여주 지역은 이천과 더불어 경기미 중에서도 상

품의 쌀을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쌀”이라는 상품의 브랜드는 생산지로 표시되고 있으며 서울의 ‘쌀가게’ 상호로 사용되는 빈도로 생산지의 명성을 알 수 있다).

(1) 자연적 조건

태리지에 의하면 여주 지역은 평양, 춘천과 더불어 살기 좋은 강촌(이중환 저, 허경진 역, 1996, pp.263-264)에 포함되었고 이색의 시에 의하면 들은 평평하고 산은 멀다(아세아 문화사, 1983a, p.132)고 표현되어 있으며 이천 지역과 더불어 수도권에서 넓은 평탄지를 이루는 3곳 중의 한 곳이다(21세기 경기 발전 위원회, 1997, p.66). 여주의 평탄지는 소기상(小起狀)의 침식지형으로 일찌기 저위평탄면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권혁재, 1990, pp.151-152).

여주군을 둘러싸고 있는 세 산맥(광주, 태백, 차령)의 영향으로()자 모양의 분지를 이룬다. 북쪽에는 광주군과의 경계에 천덕봉(635m), 남쪽에는 충청북도와의 경계에 오갑산(609m), 동쪽에는 양평군과의 경계에 당산(541m)같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 둘레 안쪽에 있는 대부분의 산지들은 침식을 많이 받아 구릉들을 이루며 파랑상(波浪狀)의 형태를 나타낸다. 여주 지역의 산지를 이루는 화강암은 석영, 장석, 운모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으면 장석이나 운모는 점토로 변하고 저항력이 매우 큰 석영은 대부분 모래알로 떨어져 나간다(권혁재, 1990, pp.31-32). 그리하여 남한강변에는 넓은 모래사장이 발달하였고 싸리산 등에서 채굴되는 백토와 점토는 도자기의 원료로 이용되어 왔다.

구릉을 타고 내려오는 소하천들이 합류하는 여강(驪江)이라고 불리는 남한강은 여주의 동남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며 여주 지역을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한다. 여주 지역의 하계망은 전형적인 수지상(樹支狀)의 형태를 이룬다. 강남지역에서는 청미천(淸美川)과 이천시를 흘러나오는 북하천(福河川)과 양화천(楊花川)이, 강북지역에서는 북부 산지에서 발원하는 금당천(金塘川)과 계림천이 여강(驪江)과 합류한다(그림 1). 하천은 농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해 주고 양안에는 토사를 퇴적시켜 비옥한 평야를 이룬다. 따라서 이러한 지형은 벼농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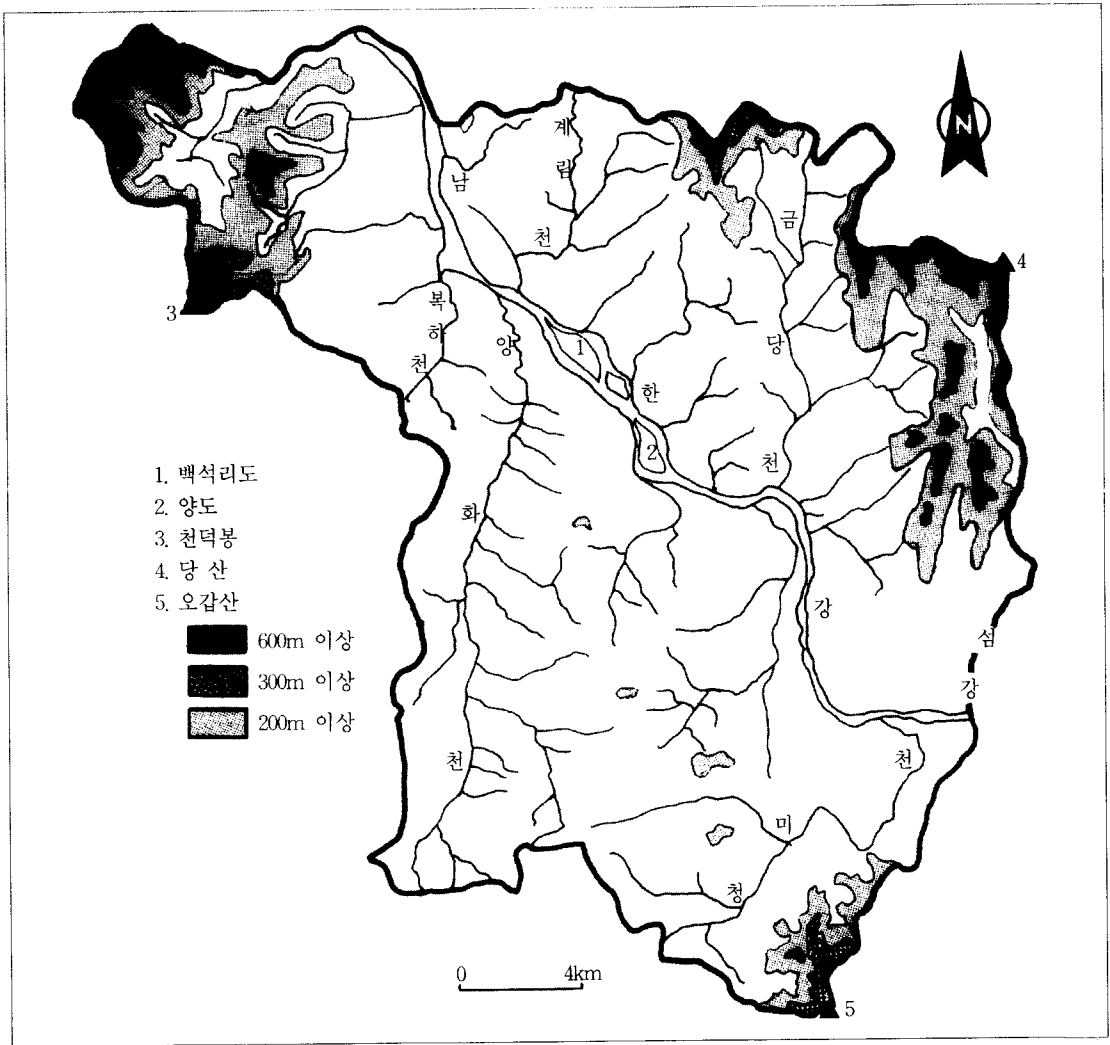


그림 1. 여주 지역의 하계망과 산지 분포도

가 발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연적 조건을 제공한다.

여주 지역의 기후는 한반도의 내륙부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 특색과 거의 일치하는데, 과수 재배와 벼이삭의 출수-개화기인 8월과 숙성기인 9월에는 일교차가 다른 지방에 비해 1~2도가 높아 유리하다. 여강(驪江)을 끼고 있어 비교적 안개가 많고 강수량도 많은 편이다.

(2) 『漕運路』로서 이용된 남한강

조선 후기 남한강 유역의 가장 중요한 산물은

쌀이었다. 특히 여주와 이천 일대에는 조생종 벼를 재배하여 일찍 시장에 출하하기 때문에 이 지역 농민들은 많은 이익을 보았다(星湖僿說 卷8)고 한다. 여주 지역이 쌀 생산지로 이름이 나 있었음은 “광주 분원 사기 방아, 여주 이천 자채 방아”라고 하는 민요의 구절에서도 알 수 있다. 여주·이천의 “자채쌀”은 수운이 발달했던 조선 시대에 남한강 하운을 통해 임금님에게 진상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운기와 맛이 뛰어나 국내에서 최고의 품질로 쳤다²⁾.

남한강은 길이가 약 390km로 영서 山地에서 발원하여 충북 동부와 경기 동부 지방을 흐르는 한

강 중·상류의 큰 물줄기로서 이 수로는 근대 교통 기관의 도입 이전까지 중부 지방의 대동맥 구실을 하여 왔다. 남한강은 중부 내륙과 한양을 연결하는 수송로이며, 동시에 조선 시대의 자원과 인체의 보고였던 영남 지방과도 연결되는 교통로의 주축이었다. 특히, 고려와 조선조 1,000년간 남한강은 전국 제일의 조운로(漕運路)로서 왕국의 정치, 경제적 통합에 기여한 바 크다(최영준, 1987, p.79). 여주에는 3개의 수조치(收漕處)가 있었는데 경창직납지(京倉直納地)이기도 했다(최영준, 1987, p.63). 그리고 대하천의 본류에 접한 곳에는 수로 교통이 편리한 관계로 상업 취락이 발달하였으며 세곡선(稅穀船)과 상선(商船)이 붐비는 상업 중심지들이 있었고(류제현·오금석, 1992, p.267) 이포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사상(私商)과 조운업자(漕運業者)가 성장하였다(최영준, 1987, p.63). 19세기 경기도의 장시 상황을 알려 주는 “임원십육지”와 “대동 여지지”에 의하면 여주에는 5개 이상의 장시가 있었고 4개 이상의 장시가 모여 상설시장권을 형성하였다(장승일, 1994, pp.190 -191).

(3) 여주 지역의 정치지리적 위상

조선 초기부터 경기도에는 私田이 많았는데, 특히 여주와 이천 등지에는 귀족들이 소유한 농장이 많았고(태종실록 卷3) 사대부들이 많이 거주하였다(이중환 저, 허경진 역, 1996, p.145). 사대부들에게 있어 왕후(王后)의 책봉은 가문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정치적인 힘을 실어 주었다. 여주 지역도 왕후의 내향(內鄕)이었기 때문에 정치지리적 위상이 높아진 경우가 몇 번 있었다. 고려 시대 충렬왕 때(1305년)는 그의 어머니인 원종비 순경태후(順敬太后)의 내향이라 하여 황려현(黃驪縣)에서 여흥군(驪興郡)³⁾으로 승격되었으며 조선 시대 때에는 태종 1년(1401년)에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내향이라 하여 다시 부(府)로 승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주 지역의 정치지리적 위상이 높아진 또 다른 이유는 광주 서쪽 대모산에 있던 세종대왕의 능을 여주 북성산에 옮겨오면서 부터이다. 그리하여 1469년에 인구 규모와 토지 면적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주목(驪州牧)⁴⁾으로 승격되었다.

조선 시대 효종 때의 정치가이자 노론파의 총수였던 송시열은 영·녕릉(英·寧陵)이 이곳에 온 후, 이완 대장 집에 기거하면서 매일 참배하였고 대로사(大老祠)를 건립하였다. 1779년 정조 대왕이 영·녕릉 친행차 여주에 왔을 때, 유럽 대표가 청하여 서원이 건립되었는데 6년 후에는 사액(賜額)을 받게 되었다(여주문화원, 1996, p.101). 대로사와 대로서원이 세워지면서 여주 지역에 노론파들이 집결하기도 했었는데(뿌리깊은 나무, 1987, p.326) 인현왕후의 아버지인 민유중(閔維重)은 송시열의 문인이었으며 후에 노론의 중진이 되었다.

2) 농업 경제에 기반한 낙후지역

(1) 수운의 쇠퇴와 육로의 미비

남한강의 수운은 일제시대 이후 철도와 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쇠퇴하기 시작하여 팔당댐이 완공되던 1974년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931년부터 여주 지역의 미곡과 강원·충청 지방의 산물을 수원으로 수송하였던 수려선(水驪線)은 해방후 국유로 귀속되었다가 일반 육로의 발달로 이용이 줄어들면서 1972년에는 폐선되었다(최영준, 1987, pp.78-80).

1970년에는 여주 지역의 도로 연장이 수도권 동남부의 인근 지역들(그림 2)에 비해 많은데 비해 실제적인 도로의 이용가치를 높여 주는 도로 포장율은 0.18%에 불과하여 가장 낮다. 1980년에도 여주 지역의 도로 포장율은 경기도 도로 포장율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표 1은 1970-1980년대 여주 지역에서의 육상 도로 체계가 매우 열악했음을 보여준다.

1971년, 영동 고속 국도(여주 구간)의 개통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울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나 고속 국도는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 발전까지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영동 고속 국도와 병행하여 여주 지역을 서에서 동으로 통과하는 42번 국도(인천-동해선)는 이천-여주 구간이 1984년까지 비포장 상태였다. 여주 지역의 남서부 지역을 남북으로 통과하는 3번 국도(남해포-초산선)는 일제 시대에 건설된 신작로로 1979년에 2차선으로 확장 포장되어 서울과 충주 지역간의 산업 도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표 1. 경기도 동남부 지역의 도로 연장과 포장율 비교 (단위: m, %)

도로상황 지역	1970년		1980년		1995년	
	총연장	포장율	총연장	포장율	총연장	포장율
경기도	4,264,288	14.21	4,129,901	33.83	8,823,935	87.6
여주군	258,645	0.18	279,060	15.39	368,960	77.2
이천군	145,104	3.40	165,827	30.38	300,880	74.3
양평군	314,410	0.22	290,185	22.41	371,300	83.4
용인군	223,059	9.80	244,519	35.79	289,626	85.4
광주군	254,794	11.54	178,958	33.20	253,840	76.5

자료: 경기통계연보, 1970년, 1980년, 1995년.

하여 왔다. 1964년 여주대교가 개통됨으로써 점동면 원당리에서 대신면 천서리를 지나는 폭 6m의 비포장도로가 지방 도로로 승격되었고 1981년에는 전 구간이 폭 8m로 확장되면서 37번 국도(거창-파주간)로 승격된다. 여주읍과 강을 사이에 두고 나루터 취락이었던 북내면 오학리는 37번 국도로 인해 나루터 중심의 도로망에서 오학리를 우회하는 국도 중심의 도로망으로 바뀌게 되었다.

(2) 상수도원으로서의 남한강과 개발 규제

여주 지역의 경제기반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법에 의한 개발 규제를 들 수 있다. 여주 지역은 지형적으로 평지에서 산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사 훈련하기에 유리한 곳⁵⁾이며 남한강이 만들어 놓은 하중도는 군헬기장과 군사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시설로 인하여 여주 전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3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였다(뿌리깊은 나무, 1987, p.326).

한편, 수도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팔당댐의 건설로 만들어진 팔당호는 1979년부터 서울의 상수도원이 되었다. 그리하여 여주 지역에서 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남한강은 상수도원 상류가 되었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1982년)에 의해(여주지역은) 한강 수계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의 신·증설이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1만km² 이상의 택지 조성 사업, 3만km² 이상의 공업 용지 조성 사업이 불가능했다.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생활 관련 업종과 도시형 업종의 공장만이 허용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의 경우에도 면적과 시설에 대한 규제는 공장의 설립이 활발하게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생계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었다.

(3) 인구와 산업의 낙후성

여주 지역의 전체 가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5년에서 1970년까지는 늘었으나 70년대 이후 부터는 꾸준히 줄고 있다. 1980년 우리 나라 총 가구에 대한 농가의 비율이 27.0%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반해 여주 지역에서는 농가가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2). 지역 경관을 잘 보여주는 토지 이용 면에서 볼 때도 여주 지역의 경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30.0%를 차지하는데 전국의 경지 면적 구성 비율 21.9%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여주군의 쌀 생산량은 전국에서 대략 0.95%를 차지하고 경기도에서는 6.8% 전후를 차지한다.

농업외의 주요 광·공업들을 살펴보면, 콘크리트 제품이나 건축 자재와 같이 용지 확보가 필수적이고 공해 업종이 아닌 기타 비금속 광물 제조

표 2. 여주군의 농가와 비농가의 비중 변화

구분 연도별	총 가 구			
	계	농 가	비 농 가	농가 비율(%)
1965	17,747	13,724	4,023	77.33
1970	17,966	15,120	2,846	84.16
1975	19,355	14,378	4,977	74.29
1980	20,433	12,712	7,721	62.21
1985	21,585	13,685	7,900	63.40

자료 : 여주군 통계자료, 해당 연도

업과 도자기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80년의 공장 용지가 여주 지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7%에 불과했다.

이렇듯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광·공업의 비중이 작았던 여주 지역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이전까지 전국의 군부와 비슷하게 인구

표 3. 다양한 지역 수준에서의 인구증감률 추이(1960-1995)**

(단위:%)

지역 연도	전 국		경 기 도		여 주 군	이 천 군	용 인 군
		군 부		군 부			
1960-1966	16.69	7.71	12.86	5.21	5.67	10.56	-1.39
1966-1970	5.91	-6.22	6.27	1.21	-10.54	-12.49	-9.82
1970-1975	12.40	-1.43	22.51	-0.53	5.46	9.04	17.52
1975-1980	7.87	-10.67	22.15	6.88	-6.04	-3.91	21.63
1980-1985	8.05	-12.48	25.28*	1.02	-4.98	14.36	13.44
1985-1990	7.33	-20.73	29.01*	-19.49	-3.80	19.06	22.24
1990-1995	2.76	-13.78	56.98*	-14.58	-5.00	4.45	29.24

* 인천시 포함 ** 손명철, 1995, p.60의 것을 보완하여 인용.



그림 2. 여주 지역의 읍·면별 행정 지역도

감소를 겪게 된다. 주목되는 점은 1970년대 초반까 지도 경기도 동남부의 인근 지역들인 이천군, 용인 군과 비슷했으나 중반부터는 여주지역만이 두드러진 감소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들어서는 경기도 동남부 지역들(그림 2)보다 인구 감소 현상이 심하지만 전국 군부나 경기도 군부보다는 인구 감소율이 낮아지고 있다(표 3).

3. 새로운 지역경제기반의 등장

1) 지역 경제기반 변화의 배경

1987년에는 여주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3개 노선 전 연장이 100% 포장되었고 4차선의 중부고속국도(서울-대전)가 개통되었는데 여주군을 통과하는 영동 고속 국도와는 인근 이천군의 호법 IC에서 교차한다. 그리하여 여주 지역에서 서울로의 시간 거리는 1시간 30분 이내로 줄어들었다. 1991년에는 금사면 이포리에서 대신면 천서리를 잇는 이포대교가 완공되었고 3번 국도가 1992년, 영동 고속국도가 1994년, 42번 국도(이천-여주읍 구간)가 1997년에 4차선으로 확장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여주 지역에서 서울 동·남부 지역으로의 시간 거리가 1시간 이내로 줄어들었고 서울로의 통근도 가능하게 되었다. 여주 지역의 도로 상황을

인근 지역과 비교해 볼 때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1980년대 중반 이후 법적 규제도 많이 완화됨으로써 여주 지역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88올림픽을 전후로 군사 시설 보호 지역에서 여주의 많은 지역이 해제됨으로써 건축 제한이 풀리게 되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도 꾸준한 부분 개정을 거쳐 1994년에는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개발 규제도 많이 완화되었다. 1985년 이후에는 자연보전 권역에서 도자기 산업을 특화 산업(6)으로 인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생계수단의 기회를 넓혀 주었고 1988년에는 도시형 업종이 추가되었다.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택지 조성 사업 6만km², 평균 인구 증가율이 낮은 시·군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경우 공장 용지 6만km²이내의 것 등은 수도권 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면적은 확대되어 허용되었지만 건설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여주 지역에서 이러한 규모의 사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규제의 완화 조치로 북내면에서는 도자기 산업이 활발하게 되었고 여주읍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되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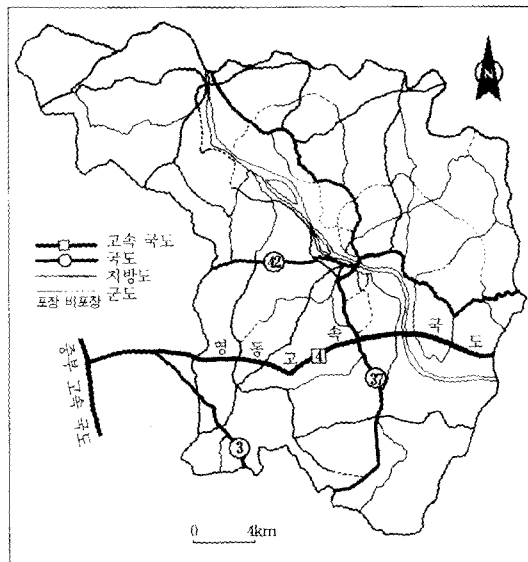


그림 3. 1996년의 여주 지역 도로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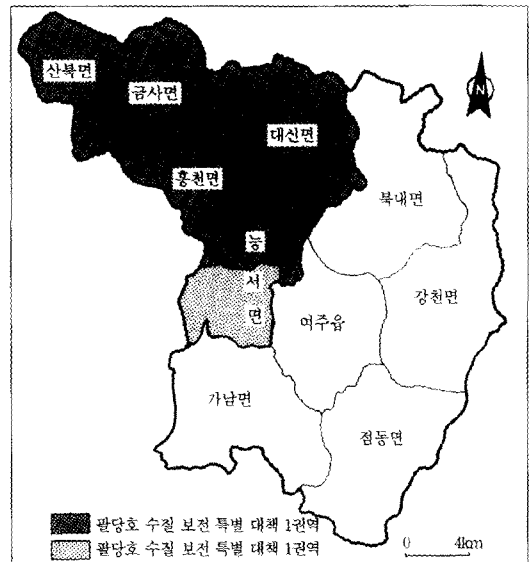


그림 4. 상수도원 특별 대책 권역의 분포도

년 환경처에 의해 정해진 상수도원 수질보전 특별 대책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제한을 받게 되었는데 여주군 전체의 41% 지역이 해당되고 규제가 심한 1권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8%나 되면서 또다시 생계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그림 4).

여주 지역에서 허용되는 업종은 현지 근린 공장 및 첨단 업종으로 자연 보전권역에서는 337개 업종, 팔당호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에서는 157개 업종이다. 그리고 여주 전 지역에서는 택지 조성 사업·공업 용지 조성·관광지 조성의 경우, 면적 3만m²이상은 제한되며 3만 이상 6만m²이하의 경우 수도권 정비 위원회 심의를 얻으면 예외로 인정된다. 학교의 경우도 불가능하나 50인 이내의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 심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업무 및 판매용 건물의 면적도 제한된다. 이로 인하여 대규모 관광지 조성⁷⁾이 어렵고 4년제 종합대학 설립이 불가능하며 상업적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특히,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내에서 농촌의 주요 생계 수단인 축산을 하는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기준⁸⁾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여주 지역 주민들은 생업과 관련한 행위 제한 및 금지 규정으로 인해 생계 위협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타지역 주민들과의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민선 지방자치시대 이래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 관계⁹⁾는 충돌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2) 지역 경제기반의 변화 모습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여주 지역의 농업 경제 기반을 보여주는 영농 형태별 농가 비중 변화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축산업이다(표 4). 여주 지역은 낮은 구릉지들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들을 갖고 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입지 조건도 유리해졌다.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적 기술과 대규모 시설을 필요로 하는 젓소 및 육우와 돼지 사육의 경우, 규모가 크고 분포가 집중되어 있는 곳들은 가남면, 북내면, 점동면, 능서면의 노남 지역 등이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오페수로 크게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상수도원 특별 대책 권역에 해당되지 않음)이며 교통이 발달된 곳들이다. 능서면의 노남 지역은 특별 대책 2권역에 속하나 1권역보다는 규제가 덜한 지역이다. 특별 대책 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시설 면적의 규제를 받기 이전부터 운영되던 곳들은 규모가 클 수 있다.

총사업체 중에서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도자기 업종을 포함하는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체 수 및 종업원 비중이 각각 50.67%와 41.53%에 이른다. 그림 8은 1996년 현재 여주 지역 광·공업들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980년에 비해 제조업체의 분포가 여주읍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 북내면에는 도자기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되고 있으며 가남면에는 대규모의 금강 유리 공장과 침대 제조업체인 아트레 공장과 석가공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여주읍에는 두산 음료 공장과 대우 피아노 공장 등이 도로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능서면의 대부분 지역은 상수도원 특별대책권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모도 소규모이고 공장들도 많이 분포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대 전자가 입지한 이천시와 42번 국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립금속 및 사무·

표 4. 영농 형태별 농가 호수의 시기별 비교

(단위:%)

영농형태 년도	답작	고등원에 (화훼)	과수	채소	특용작물	전작	축산	양잠	기타
1970년	84.30	0.11	0.28	0.95	0.32	8.19	0.68	2.22	2.95
1995년	71.44	0.64	1.30	9.83	4.28	2.92	9.47	0.01	0.12
증가율 (70년-95년)	-42	288	212	610	823	-76	850	-100	-97

자료 : 경기도 통계 연보, 1970, 농업총조사, 1995, 농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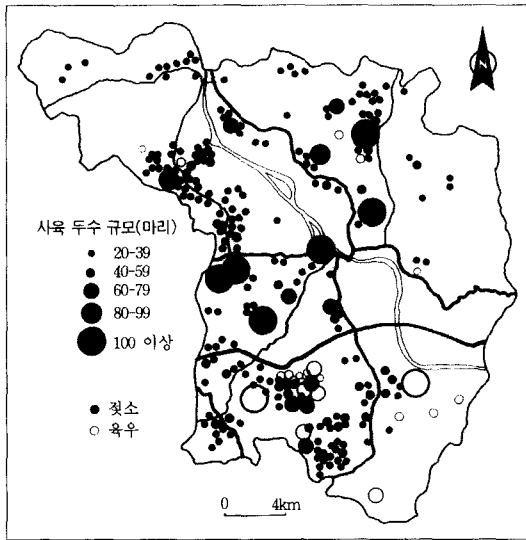


그림 5. 여주군의 낚소 육우 사육 분포도(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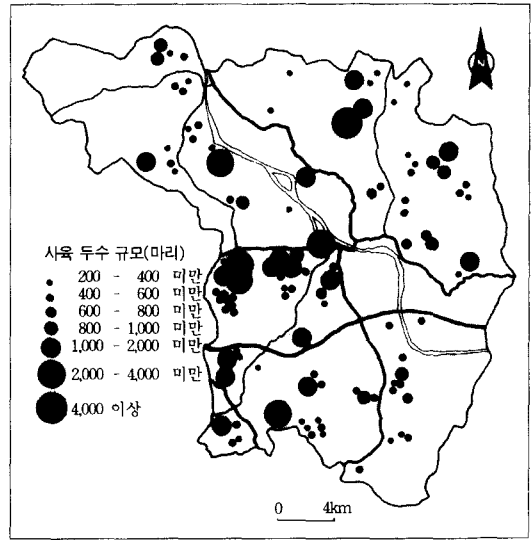


그림 6. 여주군의 돼지 사육 분포도(1996년)

통신기계 산업 등이 분포하고 있다.

공장 시설 외에 종교·교육·연수 시설들도 증가하고 있다. 북내면에는 능원사라는 대규모의 사찰과 서재 소재 교회의 수련원 등이 있고 강천면에는 대순진리회 종교의 본부 종단이 있으며 점동면에는 한국 노총 연수원, 강천면에는 청소년 수련원 등이 있다. 여주 전문대는 1993년에 설립되었고 1998년에는 여주 공대가 50여명의 정원으로서 개설되었다.

단일 소분류 업종으로는 음식업이 총사업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에는 약 20%에 이른다. 음식업의 증가는 소득의 향상에 따른 외식의 증가도 이유가 되겠지만 지역 내의 다양한 여가시설과 문화 시설¹⁰⁾이 있는 주변에 '가든'이라고 명명되는 고급 음식점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을 주 고객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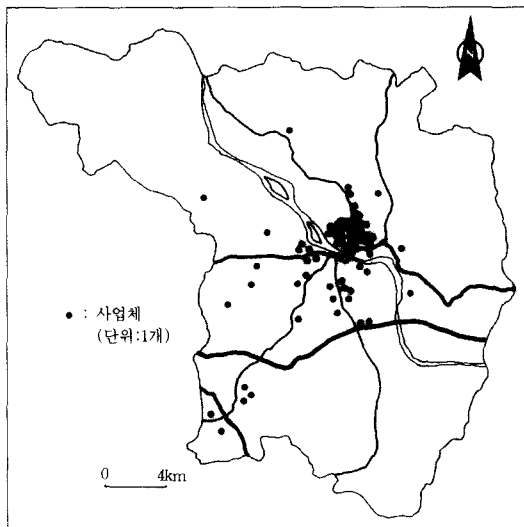


그림 7. 여주군의 광·공업 분포도(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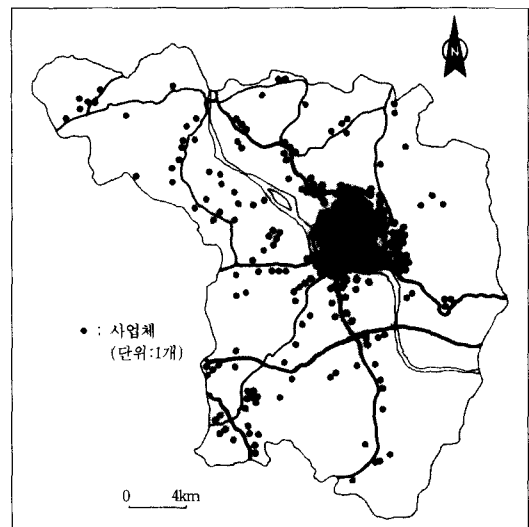


그림 8. 여주군의 광·공업의 분포도(1996년)

3) 도자기 산지로서의 발전

(1) 도자기 산업의 입지와 발달

총사업체조사에 따르면 도자기 사업체¹¹⁾ 수로 볼 때, 여주 지역이 지역 산지로는 전국 최대의 규모이다. 도자기 산지로 알려진 인근 지역과 비교해 볼 때도 여주지역에서는 도자기 산업이 전체 제조업 중에서 매우 큰 비중¹²⁾을 차지하는데 증가세에 있어서도 매우 두드러진다¹³⁾.

여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자기 사업체들은 대략 600여 업체¹⁴⁾로 대부분은 북내면에 집중되어 있다. 여주 나루의 맞은편이었던 북내면의 오탁리는 인근 싸리산에서 생산되는 백토, 도토, 점토 등의 도자기 원료를 광주 분원(1652년 설치)까지 실어 내가는 집적지였으며 도자기 원료 산지인 영월, 충주, 청풍 지역에서 실어 오는 원료들이 남한강 수운을 이용하여 광주 분원에 운송될 때의 주요 거점이기도 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여주군 북내면 串山(현재 현암리)에서 中品の 도자기를 생산했고 여주군의 서쪽에서는 下品の 도자기를 생산했다는 기록(아세아 문화사, 1983b, pp.308-309)이 있다. 그후 1920년대에 일제에 의해 전신주용 애자와 일반 서민용 생활 자기를 만들던 조선 도자기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해방후에는 이곳에서 일했던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오탁리와 현암리 등지에서 가내 수공업 형태로 명맥이 유지되어 왔으며 도자기 원료 산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는 외지인들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1970년대 이후 일본과 區洲지역으로의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공장들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여주군은 우리 나라 전통 도자기를 재현하는 우리나라의 3대 요업지 중의 하나가 되었다(한홍렬, 1989, p.173). 1980년대에 들어서는 공장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그림 9)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도자기의 국내 수요 증가와 생산 설비의 발달에 따른 품질 개선 및 양산 체제로의 전환(박양춘 외 2인, 1995, p.274)과 올림픽 특수를 계기로 한 우리 전통 상품에 대한 홍보 때문이었다고 본다. 특히, 1980년 중반 이후의 법적 규제 완화 조치인 특화 산업으로의 인정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교통 체계의 향상으로 인한 서울과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여주의 대표적 관광

지였던 영릉과 신록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이들은 도자기의 소비자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의 왕래가 빈번한 교통로를 따라 도자기 공장과 판매장들이 증가했다.

(2) 여주 도자기 산업의 특징

여주 도자기의 주된 품종은 생활 도자기로 전체의 59%를 차지한다. 그리하여 여주지역을 생활 도자기 중심의 도예 산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주 지역이 짧은 시일 내에 도자기 최대 산지로 부상한데는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생활 도자기 중심이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여주 지역 도자기 생산 업체의 또 다른 특징은 규모가 매우 영세하다는 점이다. 공장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5인 이하가 75.4%, 10인 이하가 91.5%에 이른다.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집적하여 협동적인 연계망 즉, 사회적 분업 체계를 형성하여 산지를 이루는데(박삼옥, 1994, p.186) 여주 지역의 경우도 북내면에 집중하여 산지 내에서 분업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성형과 소성만을 하는 도자기 공장들이 대부분이나 소지·유약 전문 생산 업체가 등장하고 성형틀 제작, 전사지 제작소, 가마 제작소, 포장용 상자 생산업체 등이 등장함으로써 생산비의 절감과 외부 경제 효과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¹⁵⁾. 타지역의 기업체형 도자기 공장들에(한홍렬, 1989, pp.166-167) 비하여 여주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많은 이유는 법적으로 공장의 연 건물 면적이 1,000m²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자기 공장을 규모별로 봤을 때 200평 이하의 규모가 90.7%나 되었다(그림 10).

여주 도자기 공장의 대부분은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도자기 업종에 참여한 계기 중에서 가업 계승이 20%나 차지하여 대를 이어 도자기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친척의 소개로 참여하게 된 경우도 28.7%나 차지하면서 가족이나 친척 등 혈연에 의해 도자기 업종을 시작한 경우는 49%에 달한다.

운영자들의 경우 여주가 고향이거나 유년 시절부터 거주했던 사람들은 56.0%를 차지하고 타지역에서 성인이 되어 온 경우는 44.0%이다. 도자기 공장을 창업하기 전, 도자기 공장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81.7%가 여주 지역에 있는 도자기 공장을 다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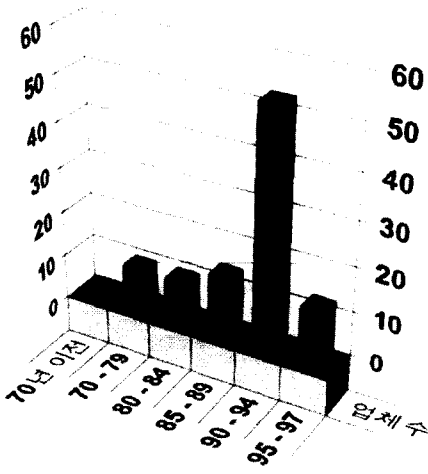


그림 9. 도자기공장의 설립연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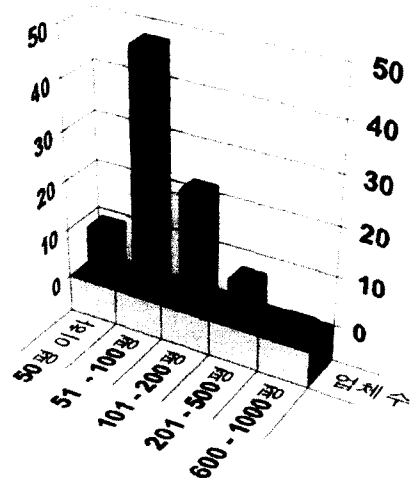


그림 10. 도자기공장의 규모별 분포

었다고 한다. 도자기 업종에 참여한 계기 중에서 17.3%도 단지 집주변에 도자기 공장들이 많았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결국 여주 도자기 산업의 경우 지역적 연고가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3) 도자기 산업 및 지역의 변화

도자기 공장들은 원료 산지인 북내면 오학리와 현암리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북내면의 기타 지역 혹은 북내면 외의 인근 강북 지역에서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1993년에는 북내면에 군내 도자기 업체의 91.1%가 차지하고 있었으나(박양춘 외, 1989, p.274) 1996년에는 75%가 분포함으로써 북내면으로의 집중도가 떨어졌다. 42번 국도의 불교 박물관 주변과 37번 국도의 대신면 남부 지역, 영릉이 있는 능서면에도 도자기 공장들이나 도자기 판매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도자기 공장들과 판매장들은 북내면 도자기 산지의 핵심 지역에서 점차 외지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은 국도 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자기 공장뿐 아니라 판매장의 증가도 두드러진 현상인데 판매장만을 운영하는 경우는 1980년대 초부터 신록사 인근에서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도로변을 따라 자체 판매장을 여는 경우가 많아졌다. 판매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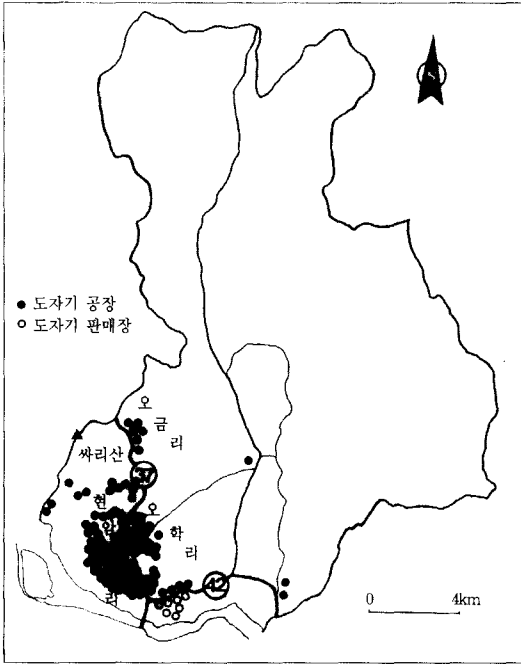
운영자들 중에서 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80.4%이고 판매장만을 운영하는 경우는 19.57%였다. 공장과 판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공장의 설립 연도가 판매장 설립 연도보다 빠르다¹⁶⁾. 기존의 공장을 운영하던 곳들에서 중간상인에 의해 이루어지던 유통에서 벗어나 외지 도·소매상과 직접 거래하거나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하여 공장은 도자기 산지의 핵심 지역에 두고 판매장은 도로변에 세우는 경우가 많아 졌다(그림 11과 12 참조).

4.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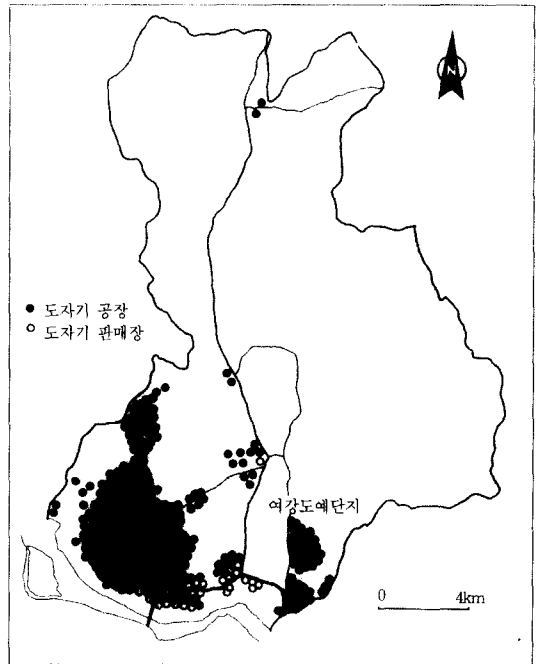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인간들의 활동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군(郡)이라고 하는 역사성이 공유되는 생활지역의 특성을 경제기반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었다.

벼농사를 주로하는 농업 위주의 지역경제를 전통적인 경제기반으로 보았을 때, 여주지역은 근대 이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산업화의 영향이 적었던 1960년대 중반 이전까지 여주 지역은 이름이 높은 미작 지



지도 11. 북내면 도자기 공장과 판매장의 분포도(1989년)



지도 12. 북내면 도자기 공장과 판매장의 분포도(1997년)

대였다. 여주 지역은 농업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을 갖고 있었고 남한강은 조운로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도회지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서울과 가까운 농업 지대인 이곳에서 사대부들이 자리잡게 되었고 정치지리적 위상이 높아졌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화 정책과 관계없이 벼농사 중심으로 산업이 이루어졌던 여주 지역은 다양한 법에 의한 개발 규제와 상대적으로 불편한 교통 여건으로 공장 유치가 부진하였고 주민들의 경제 기반은 여전히 농업에 의존하고 있던 낙후된 농촌 지역이었다.

여주 지역이 새로운 경제기반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도로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서울로의 접근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법에 의한 개발 규제도 많이 완화되었고 도자기 산업이 지역 특화 산업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1990년에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여주 지역의 41% 지역이 지정되면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와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농가의 비율이 서서히 감소되어 있지만 아직도 미작 농가의 비율이 높은 편인 가

운데, 영농의 다각화와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토지 이용을 수용하면서 점차 수도권권의 배후지역으로서의 가능성도 넓혀 가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도자기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지역 산지로는 전국 최대를 자랑하게 되었다. 생활 도자기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도자기 공장들은 원료 산지 뿐만 아니라 교통로를 따라 확산되고 있다. 지방 정부에서도 도자기 산업을 지역 내의 문화·역사적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여주 지역의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註

- 1) 1996년 서울시 업종별 전화번호부에서 '쌀가게'의 명칭을 경기도의 시·군 행정 단위로 찾아보면 인천 65개, 여주 53개, 김포 35개, 평택 20개, 안성 9개, 강화 9개, 화성 5개, 파주 3개 순이다. 그러나 쌀 생산량으로 보면 화성, 평택, 안성, 강화, 김포, 인천, 여주 순이다.
- 2) 자채쌀은 생산량이 적다는 이유로 5.16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하지만 여주에서 생산되는 아끼바레(추청벼)쌀은 년 총량 중 77%을 차지하

- 는데, 자체설 못지 않게 미질이 뛰어나 옛 명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여주군지편찬위원회, 1987, p.831).
- 3) 여주를 여흥(驪興)이라고도 한다. 이는 고려 충렬왕(1305년) 때부터 불려지던 이름이다. 조선 태종의 비인 元敬王后와 숙종의 계비인 仁顯王后와 순종의 비인 明孝王后, 흥선대원군의 부인, 고종의 비인 明成王后는 여흥 민씨였다. 여주지역 출신의 왕후는 총 11명이라고 한다(여주문화원, 1996, pp.146-152).
 - 4) 牧은 府, 大都護府 다음의 규모로 고려 성종대부터 설정된 것인데 조선 말기 갑오개혁(1894)까지 존속하였다. 인구 규모에 비해 牧으로 승격되는 이유로는 왕후의 향지(鄕地), 왕의 안태지(安胎地) 등과 같이 왕실이 관리해야 할 장소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구역에도 목을 설치하였다(류제현·오금석, 1992, p.263).
 - 5) 훈련 중이던 F-16 전투기가 여주 인근에서 추락하였다. (1997. 9. 6일자 동아일보 신문) 여주 지역은 한강 도강 훈련이 주로 행해지는 곳이다.
 - 6)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자연보전 권역 안에 지역적으로 특화 되어 있는 도자기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의 공장과 주된 원자재가 동 권역 안에서 생산되고 동 권역안에서의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실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공장은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 1,000m² 이내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 7) 숙박 및 식품 접객 시설의 경우 건축 연면적 400m²이상의 경우에 1권역에서는 신규 입지가 금지되어 있고 기존의 시설도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게 되어 있다. 2권역에서는 BOD 30ppm이하로 처리하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 800m²이상은 1권역에서의 신규나 증설이 금지되고 2권역에서는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 8) 축산 시설의 경우 1권역에서 돈사:500m², 우사:450m²이상은 신규 입지를 금지시키고 2권역에서는 BOD 50ppm이하의 경우 가능하다. 증설의 경우 모든 권역에서 BOD 50ppm 이내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 9) 경기도는 최근 건설 교통부가 주관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각종 규제 조치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서 대단위 공장의 신·증설이 어렵게 되고 있다며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폐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팔당 상수원 특별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서울시와 인천시에 요구하

- 고 있다(매일경제신문, 1996. 2. 2일자).
- 10) 여주 군내의 문화재로는 국가지정 25곳과 도지정 20곳이 있다. 국보 4호인 고달사지부도(高達寺地浮屠)가 있는 고달사지가 있고 신록사와 영룡은 1977년부터 국민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천연기념물인 왜가리와 백로의 서식지가 있다. 1993년에는 국내 유일의 불교박물관이, 1997년 10월에는 석봉도자미술관이 개관되었다(여주군 자료와 면담 결과).
 - 11) 도자기 산업은 1994년 산업 분류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중분류 36으로 독립되어 표현되었지만 현재는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269)에 포함되어 있다. 여주 지역의 경우 전통적 관상용 도자기나 생활 자기 제품을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 도자기 제조업,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 도자기 제조업이 이에 속한다. 1996년 기초 통계 조사를 분석한 결과 269 중에서 도자기와 관련 없는 유리나 석고나 벽돌 제조나 콘크리트 제품 관련은 47개로 전체에서 약 10%에 해당된다(통상산업부, 1992: 여주군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명부).
 - 12) <도자기 업종별(중분류) 종사자 수 구성비>

단위: %, 人

업종	전국	경기도	여주군	이천군	용인군
36 도기자기	4.2	5.1	48.1	11.9	5.4
전체근로자수	3,053,572	632,323	6,246	26,198	34,818

자료: 노동부, 1991년,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손명철, 1995, p.73. 인용.

- 13) 1980년에서 1990년의 수도권 제조업 입지 패턴의 변화에서 보면 도기 자기 업종 등은 수도권내에서 감소 경향이 뚜렷했는데 이천과 여주군을 중심으로 특화 되고 있음(진영환, 하성덕, 1992, p.33).
- 14) 1989년 12월을 기준으로 한 경기도 통계 연보에 의하면 여주 지역의 도자기 공장 등록 업체는 50%에 불과하다. 결국,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통계의 300여 업체 보다 2배 많은 약 600업체가 실질적인 도자기 생산 업체라고 할 수 있겠다(여주도자기 축제 관련 보고서 내용 및 1990년 경기 통계 연보 참조).
- 15) 사업체기초통계사업체 명부에 의하면 점토 채굴 광업소가 1곳, 도자기 원료 제조업체 수가 2곳, 요업용 기계 제조업체 수가 3곳, 전자 출판업체 수가 2곳, 유약 제조업체 수가 1곳이었다. 그러나 실제 산지 내에서 운영 중인 곳들은 공식적인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 2-3배가 더 많다(박양준 외 2인, 1995, p.287; 사업체 기초 통계 사업체 명부, 1996).

16) 설문 결과 총 27개 업체가 공장과 판매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동시에 운영한 4개 업체와 분석이 불가능한 6개 업체를 제외하고 17개 업체를 분석해 본 결과 공장을 설립하고 판매장을 내는 데 걸린 평균 연수는 9.1년이다.

文 獻

- 21세기 경기 발전 위원회, 1997,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 건설부, 1984, 한국지리, 건설부 국립지리원.
- 권혁재, 1990, 지형학, 법문사.
- 김종욱, 1994, "세계화를 위한 지역 연구와 지역 교육," 지리교육논집, 31, 1-15.
- 류제현, 오금석, 1992, "한국의 전산업도시 경관에 관한 형태적 연구 - 조선 시대의 牧을 중심으로," 문화 역사 지리, 4, 263-274.
- 박삼욱, 1994, "첨단 산업 발전과 신산업지구 형성: 이론과 사례," 지리학, 29(2), 117-136
- 박양춘, 이철우, 박순호, 1995, "우리 나라 재래 공업 산지의 사회적 분업," 지리학, 30(3), 269-295.
- 뿌리깊은 나무, 1987, 한국의 발견: 경기도.
- 서태열, 1989, "지역 지리학 쟁점의 재조명: 1950-1989," 지리 교육 논집, 22, 80-91.
- 손명철, 1995, "산업화 진전에 따른 지역 변화에 관한 연구: 경기도 이천 지방 노동 시장의 공간성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아세아 문화사, 1983a, 한국지리지총서: 전국지리지①.
- 아세아 문화사, 1983b, 한국지리지총서: 전국지리지②.
- 여주군지편찬위원회, 1987, 여주군지.
- 여주문화원, 1996, 여주문화.
- 이기석, 1968, "경기도 구읍 취락에 관한 연구," 지리학, 3, 31-44.
- 장승일, 1994, "조선 후기 경기 지방의 도회 연구," 지리학, 29(2), 183 -200.
- 진영환·하성덕, 1992, "수도권 공업 정비 및 입지 시책 개선 방안," 국토 개발 연구원.
- 최영준, 1987, "남한강 수운 연구," 지리학, 35, 49-82
- 최재현, 1995, "지리학의 공간 개념에 관한 소고," 지리교육논집, 33, 12-22.
- 통상산업부, 1992, 한국 표준 산업 분류.
- 한홍렬, 1989, "한국 전통 수공업의 지역적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 학위논문.
- 李瀾, 星湖僿設, 卷八 人事門 生財.
- 李重煥, 擇里誌 (허경진 역, 1996, 한양 출판).
- 太宗實錄, 卷三 二年 二月 戊午.
- Jonston, R.J., 1991, *A Question of Place: Exploring the Practice of Human Geography*, Blackwell, Oxford.
- Meinig, D. W., 1972, American Wests: Preface to a Geographical Interpret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2(2), 159-184.
- Moran, W., 1997, Geogrphy and Area Studies: Towards a Pacific Perspective, *Geography and Area Studies*, The Korean Geography Society, 9-22.
- Pred, A., 1985, The social becomes the spatial, the spatial becomes the social : Enclosure, social change and the becoming of the places in Scane, in Gregory, D. and Urry, J.(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Macmillan, London, 337-365.